도하 아시안게임 이모저모

베어벡호 강팀에 약하고 약팀에도 무기력

AG 조별리그 힘겹게 이겨
"지도력 한계 아닌가" 지적도

핌 베어벡 감독은 한국축구 지휘봉을 잡은 다음 성인대표팀, 아시안게임 대표팀, 올림픽대표팀을 오가며 총 13경기를 치렀다.

외견상 드러난 전적은 6승4무2패로 그리 나쁘지 않다. 12일 열린 도하아시안게임 결승 문턱에서 이라크에 일격을 당해 0-1로 좌초되긴 했지만, 전적상으로는 아시안게임에서만 4승이나 보탰다.

지난 두 차례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구성된 히딩크호와 아드보카트호도 이 정도 승률을 유지했을 뿐이다.

그러나 베어벡호 전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씩 연령대가 다르게 구성됐던 베어벡호는 지금까지 모두 다섯 나라를 이겼다.

대만, 방글라데시, 베트남, 바레인, 북한을 상대로 6승을 올렸다. 대만과는 아시안컵축구 예선을 하면서 홈앤드어웨이로 두 번 맞붙어 모두 이겼다.

이들 팀 가운데 북한과 바레인을 빼면 거의 아시아 최약체에 속한다.

그마저도 속시원히 이긴 경기는 지난 9월 수원에서 펼쳐진 대만과 홈 경기 8-0 대승뿐이다.

베어벡호가 승리를 하지 못한 상대는 이란, 일본, 시리아, 이라크, 가나 등 다섯 나라다.

일본과는 21세이하 올림픽축구대표팀 맞대결에서 2무를 기록했고 이란과는 아시안컵 예선에서 1무1패로 밀렸다.

'중동의 복병' 시리아는 거의 잡을 뻔 했지만 막판 수비 실책으로 일을 그르쳤다.

그동안 상대했던 팀 가운데 가장 강한 독일월드컵 16강국 가나를 맞이해선 아예 상대가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적과 경기 내용으로 볼 때 지난 5개월간 베어벡 감독이 보여준 지도력이 한계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2일 밤 도하 알 가라파 경기장에서 열린 도하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준결승전에서 한국이 0-1로 패한 직후 고개를 떨군 이천수의 옆에서 이라크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파 판정 男핸드볼 재경기 가능성 낮아

카타르가 12일 오전 벌어진 2006 도하아시안게임 남자핸드볼 한국과 준결승 경기가 편파 판정으로 얼룩졌다는 점을 시인하고 재경기를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12일 카타르 핸드볼협회 부회장과 남자 대표팀 감독이 한국선수단을 방문해 한국-카타르 경기에서 편파 판정이 심했음을 인정하고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카타르핸드볼협회는 경기가 자신들의 뜻과 관계없이 판정이 불공정했으며 카타르 정부도 경기 결과로 인해 양국 간 우정에 금이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KOC는 카타르핸드볼협회가 준결승 재경기 의사를 표함에 따라 양국 선수단이 아시아핸드볼연맹(AHF)에 재시합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각 발송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OC 관계자는 "카타르가 편파 판정을 시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일단 양국 합의하에 AHF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재경기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N리그 우승 국민銀 K리그로 승격 거부

묘책찾기 고심

"조만간 내셔널리그의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실업축구연맹), "직접 팀 운영을 하지 못하면 스폰서로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대한축구협회)

올해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우승으로 K-리그 승격 기회를 얻은 고양 국민은행이 '프로행'을 거부하면서 프로축구 승강제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축구협회와 실업연맹이 후속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업연맹 김기복 부회장은 13일 "지난 11일에야 국민은행으로부터 K-리그 승격포기에 대한 공문이 도착했다"며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내셔널리그 준우승 팀의 대체 승격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곧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실업연맹은 국민은행의 'K-리그 승격 포기' 선언 이후 축구협회와 매일 대책회의를 벌이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실업연맹 내부에서는 국민은행에 징계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은행법 등 법적 문제를 이유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징계는 어렵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더구나 프로축구연맹은 내셔널리그 준우승팀의 승격에 대해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은 터라 사실상 올해 내셔널리그팀의 K-리그 승격은 '물건너 간 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실업연맹과 축구협회는 팀 운영권을 고양시로 넘기고 국민은행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방법에 마지막 희망을 걸겠다는 생각이다.

축구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사실상 프로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팀 운영권을 고양시에 넘기고 국민은행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방법을 실업연맹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명환 LG행…4년간 40억

역대 FA투수 중 최대 규모

올해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 투수 최대어였던 박명환(29전 두산·사진)이 거액 몸값에 같은 서울 구단인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게 됐다.

LG는 13일 "박명환과 4년간 계약금 18억원과 연봉 5억원, 옵션 2억원 등 최대 40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4년 최대 40억원은 진필중이 지난 2004년 LG와 계약하며 받았던 4년 최대 30억원을 능가하는 역대 FA 투수 중 최대 규모다.

이에따라 일본 진출을 포기한 뒤 두산의 강한 러브콜을 받았던 박명환은 잠실구장을 함께 홈구장으로 쓰는 LG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열어가게 됐다.

지난 1996년 두산의 전신인 OB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입문한 박명환은 올 시즌 7승(7패), 방어율 3.46으로 다소 부진했으나, 직구 최고 구속 150㎞ 안팎의 빠른 공을 앞세워 11년간 통산 88승(74패) 9세이브와 방어율 3.57을 기록한 에이스급 선발 투수였다.

올 해 FA 최대어 타자였던 이병규(32)가 자매 구단인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에 입단해 허탈해했던 LG는 김재박 신임 감독의 요청에 따라 선발 주축으로 활약할 박명환을 거액 베팅으로 잡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